

임태희 교육감, 허심탄화하게 도의회와 협치할 것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26년도 협치 예산 2,000억 원 규모 합의 체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교육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5일 도의회 예담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1차 여야정 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2026년도 협치 예산 합의문에 서명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의장 3인(김진수 제1부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중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합의문에 서명하며 교육청과 도의회 간 협치의지를 공식화했다. 합의를 통해 ▲현장 중심 학교운영 ▲교육행정 개선 ▲미래교육 전환 ▲교육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확대 등 5대 분야 총 2,000억 원 규모 협치 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 말씀을 통해

“여야정 협의가 늘 화두로 떠오르는데 실제로 결실은 많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대단히 성숙하고 건강한 도정의 협치 모습을 보이는 현장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학생과 교육 현장의 학부부, 교직원들을 위해 앞으로 후속 조치를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견이 생기더라도 목표가 같기 때문에 허심탄화하게 대응하고 협치로 경기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도의회와 함께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중심,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협치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중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진수 제1부교육감 등 협치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성큼’

김지원 4관왕·사이클 김정빈 3관왕…개인·단체전 모두 강세

부산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장애인 스포츠 축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도가 종합 1위를 굳히며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대회 5일차인 4일 기준 경기도선수단은 총득점 204,339.80점, 메달 400개(금 156, 은 128, 동 116)를 기록하며 종합 선두를 달리고 있다. 뒤를 이어 라이벌 서울(174,781.50점)이 2위, 개최지 부산(139,398.64점)이 3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사이클·수영·파크골프 등 개인 종목에서의 금메달 러시와 더불어, 축구·농구 등 단체전의 연이은 승리로 고득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요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사실상 종합우승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34개의 신기록(세계신 1, 한국신 21, 대회신 12)이 쏟아지는 등 수준 높은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관왕 부문에서는 총 53명(4관왕 1명, 3관왕 21명, 2관왕 31



명)이 탄생했다.

특히 수영의 김지원 선수는 남자 자유형 100m·200m·400m S14(동호인부)와 남자 계영 400m S14(동호인부)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역도의 강성일·이현정·나용원, 육상트랙의 박병규·이상익, 사이클의 김정빈·윤준현, 탁구의 윤지유, 수영의 임은영 선수 등도 3관왕을 달성하며 경기도 선수단의 저력을 과시했다.

‘2025 K-뷰티 엑스포 베트남’ 개최. 수출상담액 4900만 달러 달성

경기도, 10월 30일~11월 1일 3일간 K-뷰티 엑스포 베트남 2025 개최

경기도와 ㈜킨텍스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베트남'을 개최해 4,9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도내 뷰티기업에 동남아시아 핵심 시장인 베트남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엑스포에는 뷰티기업 70개사가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을 선보였다.

도는 참가사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을 지원했으며,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협업 등 참가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베트남 최대 뷰티 전시회인 '사이공 뷰티쇼(Saigon Beauty Show)'와 동시 개최돼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 등 총 1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인플루언서 20여 명이 K-뷰티 이벤트 참여, K-뷰티 브랜드 체험 등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참가기업인 '크라운코스'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베트남의 시장성과 관심도가 높아 베트남을 포함해 북유럽과 동아시아권 국가의 바이어 등 총 26개 기업과 상담을 했으며 현재 4개사와 상세한 총판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3년 안에 현



엑스포 기간 동안 KOTRA 호찌민 무역관 초청 바이어와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 총 수출 상담액은 약 4,900만 달러, 계약 추진액은 약 1,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참가기업인 '크라운코스'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베트남의 시장성과 관심도가 높아 베트남을 포함해 북유럽과 동아시아권 국가의 바이어 등 총 26개 기업과 상담을 했으며 현재 4개사와 상세한 총판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3년 안에 현

지 시장에 안착해 5년간 100만 달러 규모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서, K-뷰티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내 뷰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11월 실시계획 수립 착수, 내년 상반기 인가·착공 목표 본격 추진



설 등을 구축해 생명과학 및 의료 관련 연구개발(R&D), 기업활동, 시민 건강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시행자

로 지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극대화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평택역 오거리 복합문화

광장 조성 공사 착수

평택시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중순부터 평택역 오거리 일대 공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복합문화광장'과 '차 없는 거리'를 연결하고 201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신설을 위한 것으로 지하 보행로와 주차시설이 새롭게 조성된다.

공사 기간 동안 평택역 오거리 주변 일부 차선은 임시 변경 및 통제될 예정이며 시는 단계별 공정에 따라 임시도로를 운영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과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총 808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내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완공되면 평택역 일대는 야외공연장과 녹지쉼터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이 기대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사업은 혼잡했던 평택역 일대를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

오는 8~9일 개최

의정부도시공사는 오는 8~9일 부대찌개거리 일원에서 제18회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의정부 대표 먹거리인 부대찌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대찌개 재료 활용용 '제2회 요리경연대회' ▲부대찌개 거리 내 12개 업소가 참여하는 무료 시식회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이벤트 ▲지역 예술 단체의 문화 공연 등이다.

올해는 부대찌개 재료 활용한 이색 요리 시연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소비 촉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의정부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의정부 부대찌개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성과···유수율 90% 육박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현재 총 381억 원(국비 210억 원, 시비 171억 원)을 투입해 상수관망 정비,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수도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누수 방지와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업 대상자인 일동면과 내촌면은 사업 전 50%대에 머물던 유수율이 90% 가까이 상승하며, 당초 목표였던 85%를 조기 달성했다. 이로써 연간 약 41만 톤의 누수를 방지하고 수도요금 부과 기준 약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2025년 군포시 보육인

한마당 행사 개최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송여화)가 주관한 '2025년 군포시 보육인 한마당' 행사가 11월 3일 그림책공마루 아리움 및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팝페라와 재즈바이올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을 위해 매일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보육인 여러분의 노고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며 “여러분의 세심한 돌봄과 따뜻한 마음이 군포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파주시는 지난 3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3층에서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피해방지단 참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피해방지단원 25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충기 및 포획 도구 사용 시 안전 수칙 ▲야간 포획 활동 시 유의 사항 ▲비상 상황 대응 요령 ▲관련법

준수 등이다.

특히 최근 강원도 춘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되고 멧돼지 개체 수가 증가해 포획활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조윤욱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은 시민의 안전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참여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두의 빛 하나의 수원'을 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사회복지 종사자, 시민,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주관했다. 스타필드 수원과 삼성전기가 후원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 유공 표창 수여, 이재준 시장의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

리선언문 낭독, AI(인공지능) 미디어아트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명), 수원시장 표창(23명), 수원시의회 의장 표창(3명),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3명),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3명) 등 사회복지유공자 총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수원새빛돌봄은 수원만의 공동체 돌봄 체계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가까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왕송호수캠핑장,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

의왕시는 왕송호수 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 공공 우수 야영장' 선정 평가에서 가족(어린이) 친화 분야 우수 야영장으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 우수 야영장' 평가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야영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관리 ▲교통약자 배려 ▲가족(어린이) 친화 ▲반려동물 친화 등 4개 분야에 심사한다. 이 용역 만족도 등에 따라 우수 시설을 선

정한다. 수도권 최대 호수공원인 왕송호수 인근에 있어 자연경관과 편의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 시속 80km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일, 희귀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과학관, 호수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어 수도권 캠핑 명소로 평가받는다.